

갈등의 땅 레바논 '평화·공존' 기원

총무원장 자승스님
동명부대 격려방문
세계평화기원 법회

이슬람 가톨릭 등
종교지도자와 환담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일 레바논 동명부대를 방문해 내외 신의 주목을 받았다. 사진은 동명부대 물품 공여식에 참석한 총무원장 스님을 환영하는 현지 어린이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갈등의 땅' 레바논을 찾아 평화를 위해 북망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하고 세계평화기원 법회를 봉행했다. 이와 함께 이슬람 지도자 등 지역 종교지도자들과 환담을 갖고 전쟁 종식과 평화안착을 위해 종교계가 함께 노력해가기로 마음을 모았다. 총무원장 스님 등 조계종 방문단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1일 레바논에서 UN평화유지군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명부대를 방문, 장병들을 격려했다.

방문단은 이날 동명부대 군법당인 호국동명사에서 불자 장병들과 세계평화기원 법회를 통해 테러와 전쟁, 기아와 난민이 가득한 사바세계에 평화와 안락이 깃들기를 발원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레바논은 정치적 소용돌이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지만 종교 화합의 모습은 중동 어느 나라와 다르다고 생각한다. 평

화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곳곳에 대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봤다"며 "레바논의 이웃을 소중히 인연으로서 마음까지 풀어주고 더없는 불제자의 관계로 다시 뵈기를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함남구 동명부대장은 "더욱 정성을 다해 임무를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으며, 호국동명사 금강화장 박용의 소령은 "어려운 여건이지만 주말마다 법회를 하는 것이 부대 생활의 큰 즐거움이다. 총무원장 스님과 많은 스님들이 오셔서 함께 해주니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법회에 앞서 총무원장 스님은 부르클리아 모스크를 찾아 무프티(이슬람 고위종교지도자)와 환담을 나눴다. 미드라드 합람 수니파 무프티는 "불교는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스스로를 절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교와 이슬람의 가르침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총무원장 스님은 부르클리아 시정에서 열린 취약계층을 위한 동명부대 물품 공여식에 참석, 이슬람 가톨릭 등 종교지도자들과 만나 평화 안착을 위한 종교의 역할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이번 총무원장 스님의 방문에는 군종특별교구장 정우스님, 조계종 사회부장 정문스님, 조계사 주지 원명스님,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진화스님, 육군사관학교 군종실장 함현준 법사,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김동건 불교포럼 상임대표 등이 동행했다.

▶관련기사 4편
레바논 티르=염태규 기자

새봄 한국불교 현주소 진단 새로운 역할모색 토론 활발

한국불교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21세기 새로운 불교 역할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이 종단 안팎에서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조계종의 '종단 혁신과 백년대계를 위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계간지 불교평론과 경희대 비폭력연구소가 공동 주관하는 '한국불교 정찰 관망은가' 열린논단, 3대 종교의 학자들이 모여 한국 종교계 상황을 비판적으로 조망하는 화쟁문화아카데미의 '종교를 걱정하는 불교도와 그리스도인의 대화' 종교포럼 등이 대표적이다. 대한

까지 모여 불교와 넓게는 한국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는 토론문화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전에 없던 현상이다. ▶관련기사 3편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토론회들을 살펴보면 대중의 눈높이에 맞춘 주제선정과 대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는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으로부터 종단 집행부와 분사 주지, 젊은 불자까지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모임이어서 현대 불교 초유의 일로 평가받고 있다. 또 토론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대중공사를 통해 도출된 과제들을 적극 반영해 제도화 할 것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등 '실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화쟁문화아카데미 또한 현장 토론 비중을 늘려, 참가자들이 포럼을 관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가담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 난해한 주제를 대신해 '무엇이 걱정인가' '왜 걱정인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대주제로 삼은 것도 눈여겨 볼 만하다.

'100인 대중공사' 이어 열린논단 종교포럼 등

출제가 연령 벽 넘어 이전 토론과 전혀 달라 "실천 옮기면 금상첨화"

이처럼 한국불교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빠이픈 성찰을 통해 불교의 진면목을 찾는 토론문화가 활성화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고무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자주 모여 법에 대해 토론해야 정법이 쇠퇴하지 않는다'는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삼단회화회 의견을 나누며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재영 불광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00인 대중공사는 종단의 책임 있는 종신 스님들과 재가자들이 함께 참여한다는 점에서 그동안의 토론과는 전혀 다른 문화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각자 자기 발언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의견이 모여져 실천에 옮기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성택 고려대 교수는 "논쟁은 활발하게 하되 서로 다른 점을 확인한 이후에는 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힌 연령대와 심지어 이웃종교인들

부터 명예학생증을 받은 스님은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꼭 나라 위해 일하세요!"라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불교학부의 한 신입생은 "10살이 되신 스님과 내가 같은 2015학번이구나 놀라운 일이고, 전 재산을 우리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주셨다니 정말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어현경 기자 eonaido@bulgyo.com

법인관리법 의거 종단등록 60% 육박

총무원, 197곳 중 111곳 ... "창구 계속 운영계획"

조계종 총무원이 법인관리법에 따른 종단등록현황을 발표한 결과 2015년 3월3일 현재, 총 197곳의 법인 가운데 56.3%에 해당하는 111곳의 법인이 조계종에 등록했다. 총무원의 이번 발표는 2015년 2월28일자로 종단등록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른 조치로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공식 발표했다.

종단에 등록된 111곳의 법인을 6가지 유형별로 구분한 현황을 살펴보면 사찰보유법인 8곳, 사찰법인 4곳, 사찰출연법인 28곳, 사찰공동출연법인 1곳, 승려법인 64곳, 종단법인 6곳 등이다. 이 중 다수의 사찰을 보유하고 있는 사찰보유법인은 선학원과 보리동산, 법보선원 등 3개소의 미등록법인을 제외하고 성륜 불교문화재단, 안국선원, 백련불교

하정은 기자 tomato77@bulgyo.com

동국대 최고령 신입생 100세 선도스님

장학금 1억5천만원 기탁
경주, '명예학생증' 수여



지난 2월27일 명예학생증을 받은 100세 선도스님(앞줄 가운데)이 2015년 신입생들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제공=동국대 경주캠퍼스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100세 신입생이 탄생했다. 화제의 주인공은 통일신광사 주지 선도스님으로, 스님은 지난 2월27일 2015년도 입학식에서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명예학생증을 받았다.

일제강점기인 1916년에 태어난 선도스님은 시대적 상황 때문에 정규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갖고 살았다고 한다. "여자가 글을 배워서 뭐하냐는 풍토 때문에 배우지 못하고, 나라가 없어 살아야 했던 설움이 평생의 한으로 남아있다"는 스님은 자신과 같이 학생들이 주변 여건 때문에 배움의 기회를 잃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장학

을 시작했다. 2002년 사재를 모두 경주캠퍼스 장학금으로 기부하고, 선도장학회를 설립해 매년 학생들을 후원하며 자비행을 펼치고 있다. 기부한 금액은 1억5100만원에 달한다. 입학식장에서 스님의 사연이 소개되자 신입생과 학부모들은 감동의 박수를 보냈다. 이계영 총장으로

■ 생명나눔실천 부산본부 '10만명-1만원 모금' 캠페인 전개

5면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개막식

3월 12일 목요일 오후 2시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 SETEC

문의 (02)2231-2013(사무국)

대원 대종사를 해인총림의 방장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 조계종도와 해인총림 대중들에게 올리는 글 -

해인총림의 명성에 흠집이 생기고 있습니다. 조사(祖師)와 선지식(善知識)들의 추상같은 가르침은 사라지고 권력욕에 빠진 일부 스님들이 총림을 흔들어 대고 있습니다.

불자들은 혼란해 하고 있으며 국민들도 한숨을 쉬며 조계종과 해인총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호소 드립니다. 조계종과 해인총림 대중 여러분들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른이 여법하게 방장으로 추대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잘 알려져 있듯이 대원 대종사는 용성 조사님과 고암 대종사님의 법맥을 잇고 있습니다. 고암 대종사의 전법 제자이자 해인사 용담선원의 문도로서 해인총림의 대조사

에 동참하며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 왔습니다. 1996년 고암 문도들에 의해 공주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로 추대됐으며 지금도 용담선원과 고암 문도회 회주로서 대중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조계종법에는 총림의 방장(方丈)은 선(禪), 교(敎), 율(律)을 겸비한 승랍 40년 이상으로 20만거 이상을 성만한 본분종사(本分宗師)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방장은 총림(叢林)을 대표하며, 총림 대중의 수행을 지도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인총림에서 이와 같은 방장 소임을 수행해 낼 수 있는 분은 학산대원 대종사(大宗師)입니다. 수행력과 지도력을 겸비한 대원 스님은 지난 2014년 1월 팔공총림 동화사

에서 대종사 법계를 품사하셨습니다. 조계종에서 대종사는 수행과 지도력을 기준으로 스님들에게 부여하는 최고의 지위입니다.

대원 대종사를 비롯한 여러 어른들이 대종사 법계를 받으시던 날 진제 종정에게서는 당부하셨습니다.

"모든 사부대중(四部大衆)은 대종사(大宗師)들을 여불(如佛)로 잘 받들라"고 강조하시고 강조하셨습니다.

어른이 계심에도 어른을 모함하고 허위 사실로 어른의 위(威儀)를 훼손하는 사람들에게, 방장을 모시기보다 주지를 쟁취하려는 스님들에게 총림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종정예하를 비롯해 전국에 계신 원로 대종사님들, 각 총림의 방장스님을 비롯한 어른들을 잘 모시는 것은 우리 후학들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해인총림에는 대원 대종사를 비롯해 세인 대종사와 종진 대종사가 주석하고 계십니다. 이미 세인 대종사와 종진 대종사께서는 대원 대종사를 방장으로 추대하고자 호소하고 계십니다.

해인총림의 방장스님이 여법하게 추대될 수 있도록 모든 조계종도와 해인총림의 대중여러분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역시 총림을 지키고 수행가풍을 올바르게 세우나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